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파견 학교명	Griffith University		
파견 국가/도시	Australia/Gold Coast	파견기간	2025학년도 동계
성 명		학 과	
학 번		학 년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월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평택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호주와 일본 어학연수 공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원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할 때 지원서를 정말 정성을 다해 열심히 쓰기만 한다면 반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학연수가 저에게 필요한 취업과 관련된 명확한 이유, 하고 있는 영어 공부가 무엇인지와 제 인생에서 겪어본 경험들도 녹여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면접은 작성한 서류 내용과 관련한 질문들이었고 영어로 짧게 말해보는 것이 있었는데, 지원 서류에 대한 내용 숙지와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한다면 수월하게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서를 열심히 잘 썼다면 엄청 두려워할 필요는 없이 미소와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호주 입국을 위해서는 ETA 발급이 필요합니다. 저는 Australia ETA 앱을 통해 여권 인증과 숙소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한 뒤 약 3만 원을 결제해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완료 화면은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입국 시 ETA 서류를 별도로 요구받지는 않았습니다.

항공권은 Jetstar를 이용했습니다. 기본 운임은 저렴하지만 수하물, 좌석 지정 등 부가 서비스는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기내식은 1회 제공되었고, 샌드위치는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날짜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 주말보다 평일과 이른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른 시간대를 선택하면 대중교통이 운영하지 않아 공항에서 노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리즈번 공항에서 노숙해본 경험이 있는데, 안전하고 시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사용은 초기 3일간 eSIM을 사용한 뒤 현지 유심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오류가 발생해 로밍을 사용했습니다. 통신사 혜택을 확인하면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SKT 요금제 변경 후 로밍 50% 할인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2주 만에 15GB를 모두 사용했으며, 이후에는 트립닷컴을 통해 eSIM을 재구매했습니다. 데이터를 여유 있게 사용하는 기준이라면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 신경 안 쓰고 많이 사용한 기준입니다.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 크기는 건물도 많고 큰 편인데 실제 수업을 듣는 건물은 1개라 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Woolworths랑 맛있는 베이글집도 있어서 학교 가기 전이나 끝나고 가기 정말 좋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트램 2개 다 있어서 좋은데 저는 운이 좋아서 홈스테이에서 38분 정도 걸려서 공원을 거쳐서 걸어나니면서 등교와 하교를 했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고 나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별로 덥지 않았고, 평소에는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바람 유무에 따라서 더운지 시원한지 갈렸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좋으면 많이 더웠습니다. 반팔과 시원한 바지를 입기 좋은 날씨입니다. 긴팔을 입기에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교실 안에 에어컨이 없어서 딱히 겉옷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수업 마다 선생님이 2명이셔서 월수금, 화목 이렇게 나눠서 수업했습니다. 교재에서 한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읽고 짝과 문제를 맞춰보는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였고, 아이스브레이킹같은 영어로 대화하는 수업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내 교육과 차이는 모든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라는 점과 수업 중에는 모두가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한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소통이 안 될 때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인이 아는 정보를 활용해서 소통이 원활했던 점이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홈스테이 가족이 호주분이셔서 덕분에 호주 영어를 많이 배우고 소통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한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약간 아쉬웠었는데, 집에 와서 많이 배우고 사용해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듣는 부분에 있어서 오기 전보다 귀가 트였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을 위해 세탁기 빨래를 15분 안에 끝나는 퀵 코스로 사용한다는 점이 신기하였고, 수도물을 필터에 한 번 걸러내서 바로 마신다는 점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물 맛에 예민한 편이라 맛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사먹었는데 대형 마트에서는 싼 편이지만 집 근처 마트에서는 많이 비싼 편이라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 저는 물 먹는 걸로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홈스테이로 지냈는데, 호주분으로 엄마와 아들 그리고 고양이 2마리와 기니피그 2마리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홈스테이 분들은 다들 친절했고, 아들이 어려서 거의 저녁 먹고 잠을 잤기 때문에 10시 전에 샤워해야 해서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루틴으로 지내서 좋았습니다.

식사는 아침과 점심을 사두신 우유, 시리얼, 식빵을 알아서 먹으면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집 5분 거리에 맛있는 카페들이 많았어서 후반에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브런치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호주 카페들은 보통 3시에 닫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저녁은 피시앤칩스, 라자냐와 같은 호주 음식과 샐러드 또는 밥을 같이 곁들여서 많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밥을 메인으로 카레를 주실 때도 있어서 한국 음식이 많이 생각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먹고 같이 보드게임하면서 많이 친해져서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좋았습니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에 도서관과 실외 수영장이 있는데 도서관 1층은 이야기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존이고, 2층은 조용히 집중하는 곳인데 엄청 넓고 좌석도 다양해서 수업 끝나고 과제하러 가기 좋습니다. 실외 수영장은 2,000원 정도만 내고 시간제한 없이 샤워장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한국에 비해 뻥센 편이 아니라 스노쿨링 도구 사용 가능하고, 수영복도 비키니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실외 수영장이라 살이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샤워실은 3칸 문닫고 할 수 있는 것과 세면대가 있습니다. 바닥이 일반 신발도 신고 들어갈 수 있어서 쪼리나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교실 밖 복도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보면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티타임과 보드게임, 그림 그리기, 쿼바바 코알라와 캥거루를 보러갈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도 있고, 스카이프포인트 전망대나 동물원에 가는 프로그램은 유료로 티켓을 좀 더 싸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포인트는 정해 진 날이 아니라 원할 때 가서 티켓을 사용하면 됩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가게에서 외식하면 인건비 때문에 비싼 편인데,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들은 한국에 비해 엄청싼 편이라 요리할 수 있다면 요리 해먹는걸 추천합니다.

호주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 먹고나면 한국과 다르게 그릇이나 컵을 두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할 때 하이톤으로 말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은 말투라는 것도 배웠는데 문화 차이가 신기했습니다.

호주는 건조하고 자외선이 엄청 쎈 편이라 햇빛알러지가 생겼습니다.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가 올라오고 간지러워서 긁게되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뒀서 9만원 정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니 꼭 여행자 보험 가입하고, 샤워 후에 로션 꼼꼼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여러 지역을 가보는 것이 더욱 즐거운 어학연수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브리즈번을 당일치기로 가거나 전시회나 도서관 등 가볼 곳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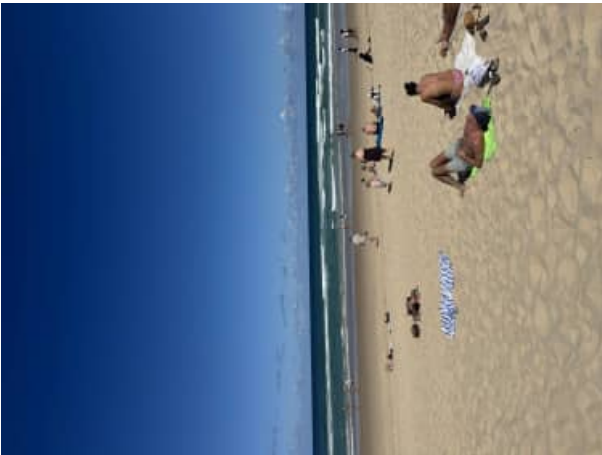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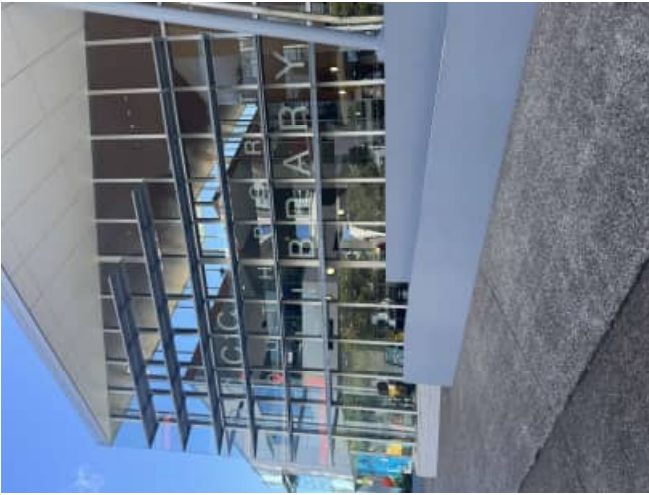
사우스포트 도서관에서 목요일과 토요일에 언어교환 스피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관심있다면 꼭 가보길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스피킹과 리스닝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파견 학교명	Griffith University(QUEENSLAND AUSTRALIA)		
파견 국가/도시	호주/골드코스트	파견기간	2025학년도 동계
성 명		학 과	
학 번		학 년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2 월 12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동계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어학연수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는 영어 자격증이나 토익 점수 등과 같은 영어 관련 스펙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었으며, 어학연수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던 이유와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점,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이후, 학교 측에서 면접 날짜와 시간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안내받은 시간에 맞추어 면접에 응시하였으며 주로 지원동기와 어학연수 학교정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 1주일 후 최종 합격 발표가 이루어졌고, 동계 연수단 중 실제로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항공권을 예매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여권과 비자를 확인 및 준비하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저는 아직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권용 증명사진이 따로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일반 증명사진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여권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여권을 발급받기 전에도 항공편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 대한항공 항공권을 예매하려 했으나 매진되어, 결국 외국 항공사인 Jetstar 항공권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여권 이름하고 항공권에 표기된 이름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홈스테이를 신청하였습니다. 홈스테이는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완료해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보이스(invoice)가 발급되는데,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스테이 신청이 완료된 후 바로 보험을 신청했고 출국 1주일 전에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홈스테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직후 바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은 어디로 신청을 하면 좋을지 잘 몰라서 SJ유학원에서 추천하는 보험사분을 통해서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홈스테이까지 이동하는 픽업 서비스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스테이 측에서 제공하는 픽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피스(Griffith) 학교에서 제공하는 픽업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픽업이 무료라는 안내를 받아 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노트북이나 패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받아서 노트북과 패드 중 어떤 것을 들고갈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몰라 둘다 챙겼는데 개인적으로 노트북이 시험을 볼 때나 수업을 들을 때 더 유용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귀국 시에는 홈스테이에서 공항까지 가는 픽업 서비스를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픽업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Con-X-ion이라는 픽업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였습니다. 도착 및 출발 시간이 정확했고, 다른 픽업 서비스에 비해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 규모는 생각보다 매우 컸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자주 이용했던 곳은 교내 상점과 도서관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시설은 매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특히 도서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느꼈습니다.

'Griffith University'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큰 다리를 건너면 바로 건물이 보였으며, 그곳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가까워 등하교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Griffith English Language Institute Southport'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어 레벨에 따라 층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대부분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었고, 4층에는 행정 업무 및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은 한국에 비해 햇빛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선글라스가 없으면 길을 걷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부셨으며,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제가 지냈던 홈스테이와 학교의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었으며,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현지 날씨는 대체로 화창한 편이었으나, 가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교 시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에도 우산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수업 진행 방식은 처음에는 국내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원어민 수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될수록 보드게임, 퀴즈 활동,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의 토론 등 참여형 수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맞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간혹 야외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나 음식, 호주에서 가보고 싶은 장소, 좋아하는 가수 등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하는 활동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인간 매듭 게임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활동도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문법과 쓰기 테스트를 보았으며, 특히 쓰기 테스트의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피드백을 해주시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내 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화 중심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영어 교육은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외 어학연수 수업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제 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외국인하고 같은 조가 되면 영어실력이 한국학생들보다 더 영어를 많이 쓸 수 밖에 없으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보드게임이나 '마피아 게임'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도 모든 설명과 의사소통을 영어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수료증 배부 전날 최종 테스트를 보았으며, 마지막 날 수료증을 수여받으며 모든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그리피스 대학교에서는 많은 문화체험이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활동들을 말하자면 먼저 콤바바 국립공원에 가서 캥거루와 코알라를 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야생동물을 말하자면 크게 캥거루와 코알라를 볼 수 있는데 콤바바 국립공원에 가서 이런 동물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매번 인터넷 영상이나 뉴스로만 보던 것을 실제 눈으로 접하니 색달랐습니다. 호주의 자연경관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는 비슷하면서도 달랐고 캥거루와 코알라 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동물들도 눈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을 본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학교 사이트에서 따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서 구매를 하고 전망대에 갔었는데 한국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호주 해변과 도시들이 한눈에 다 보일 정도로 꼭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학교 영어반 학생들과 호주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활동도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호주에 와서 다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문화 체험 활동 하나하나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홈스테이의 집 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는 주로 시리얼과 우유가 기본이었고, 바나나나 빵을 곁들여 먹기도 했습니다. 점심은 주말에만 신청했는데, 주말 점심은 대부분 빵을 기반으로 한 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핫도그, 수제 샌드위치, 수제 햄버거 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비교적 다양한 메뉴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치킨스튜, 뉴질랜드식 돼지고기 요리, 파스타, 그리고 면이나 쌀을 이용한 볶음요리였습니다. 또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음식을 사 와서 먹기도 했고, 귀국 전날에는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은 따로 개인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크기가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적당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홈스테이 어머니께서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번역기를 사용해 문장을 만든 뒤 보고 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4주 동안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면서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과 대화할 때 느끼던 울렁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영어에 노출되다 보니 말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영어 레벨에 따라 층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건물은 총 1층부터 4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은 학습 수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대부분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교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층별로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같은 레벨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 학습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4층에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관련 상담이나 일정 문의, 기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4일 전에 4층에서 픽업 서비스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방문을 했었는데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식사 공간 또한 잘 마련되어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밖에는 따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내 1층과 3층에도 간단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층에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탁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습 환경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공부에 집중하면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홈스테이에 체크인하기 전, 가장 먼저 놀랐던 점은 홈스테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마다 거의 한 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지내보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고, 오히려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낯설었던 환경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와는 다른 생활 방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릇을 물로 한 번 행군 뒤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문화 또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이나,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일상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일요일마다 교회를 방문했을 때, 처음 보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고 긴장되었지만, 계속해서 짧게라도 대답하고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소통하는 용기도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거나 혼자 이동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불쾌한 상황이나 마찰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이 비교적 이른 편이어서, 이동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막차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파견 학교명	griffith		
파견 국가/도시	호주	파견기간	2025학년도 동계
성 명		학 과	
학 번		학 년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02 월 20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호주 어학연수에 대한 공지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해당 공지글을 통해 지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지원 서류는 어학연수 지원 동기와 참가하게 될 경우 준비 계획 등을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며,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후 개인 문자로 1차 합격 안내를 받았다.

출국 몇 달 전에는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면접은 발표 당일 진행되었으며, 주요 질문 내용은 자기소개, 어학연수 지원 동기, 희망 지역, 해당 학교에 대한 사전 조사 여부 등이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실시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항공권 구매 시기와 관련하여 합격 안내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져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여행사를 비교하여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였고, 그중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야놀자를 통해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비자는 출국 약 일주일 전에 Australian ETA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았다. 신청 과정은 유튜브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비자 신청 시 여권 정보 입력이 필수적이므로 여권을 지참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의 규모는 매우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대학교 수준의 규모라고 판단되었다. 홈스테이에서 학교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은 비교적 편리하였으며, 위치 또한 우수한 편이었다. 학교 주변에는 식당이 위치해 있었고, 버스를 이용하면 유명한 관광지로도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다만, 교내에 매점이나 식당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 만약 해당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면 더욱 편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판기는 설치되어 있어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구매하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었다.

날씨는 전반적으로 선선한 여름 기후였으며, 다소 쌀쌀한 날에는 얇은 가디건을 착용할 정도의 기온이었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국내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재를 구매하여 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교수자가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반면 그리피스 대학교에서는 노트북 사용이 필수적인 수업 환경이었다.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데에는 일부 기능적 제약과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서는 노트북 사용이 더욱 적합하다고 느꼈다.

또한 수업은 Microsoft Teams를 통해 운영되었다. 매 시간 과제가 부여되었으며, 과제 제출과 피드백 또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학습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교육 방식 역시 국내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교수자의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면, 이곳의 수업은 보다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질문을 주고받았으며, 게임과 토론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첫 수업부터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일상적인 대화 또한 영어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사용 빈도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영어로 게임을 하며 반 친구들과 소통하는 활동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유익한 경험이었다.

또한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쿼바바, 스카이포인트 전망대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었다. 홈스테이가 쿼바바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해당 장소는 개별적으로 이동하였으며, 스카이포인트 전망대는 학교 측과 함께 단체로 이동하였다. 단체로 참여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었다.

특히 스카이포인트 전망대는 남산서울타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이었다.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홈스테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홈스트와 반려견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어 매우 인상 깊었다. 방은 매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홈스트는 잊지 못할 만큼 배려심이 깊은 분이였다. 식사는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었고, 한국인의 입맛과 개인적인 식성에 맞추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차량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으며, 이러한 세심한 지원은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가 아니더라도 에어컨 사용이 자유로웠고, 전반적으로 생활 환경이 편안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홈스트는 지속적으로 영어 표현을 알려주고 말하기를 유도해주었으며, 숙제를 도와주는 등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매일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날에는 공항까지 차량으로 배웅해주어 끝까지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어학연수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전체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과자 파티가 진행되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에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이 마련되어 있었다. 쿼바바 방문, 커럼빈 와일드라이프 생츠퍼리 등 동물원 체험, 스카이포인트 전망대 관람, 해변 방문, 바비큐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현지에서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는 현지 전화번호를 개통하거나 현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SNS 어플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홈스트와 연락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율이나 귀가 시간 등으로 인해 연락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다행히 홈스트가 Instagram을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서는 택시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현지 택시 어플을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친구와 함께 이동할 경우 비용을 나누어 결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카드사나 은행의 트래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종종 보였으며, 밤이 되면 주변이 매우 어두워지는 지역도 있었다. 따라서 가급적 늦은 시간 외출은 자제하고, 해가 지기 전 홈스테이로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홈스트를 위한 작은 선물이나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가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호주에서는 한국처럼 다양한 디자인의 편지지를 쉽게 구하기 어려워 감사의 편지를 작성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9. 관련 사진



해주서서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파견 학교명	그리피스 대학교 (Griffith University)		
파견 국가/도시	호주	파견기간	2025학년도 동계
성 명		학 과	
학 번		학 년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2 월 20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평택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호주 어학연수 지원모집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지원동기와 어학연수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점, 기대하는 점 등을 작성하여 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 서류 제출 후 면접 안내 문자를 받았고, 지정된 일정에 맞춰 면접에 참여하였다. 면접에서는 지원동기, 해외 체류 경험, 영어로 간단한 자기소개 등의 질문을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합격 안내 문자를 받았다.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먼저 학교에서 지정해 준 항공편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이후 해외 파견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관련 안내를 받았다. 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녹화된 오디오 파일을 공유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 채팅방 공지에 따라 구글폼을 통해 여권 사본, 증명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프로그램 비용원 원화송금과 외화송금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었으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였다. 영어 테스트 또한 공지된 일정에 맞추어 응시하였다. 홈스테이 신청 및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정보 역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안내받았으며,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할 수 있었다. 비자는 ETA 비자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 크기는 전반적으로 큰 편이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의실과 공용 공간이 비교적 넓게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캠퍼스 전체적으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리적 위치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느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했으며, 생활하기에 부담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학교 주변 환경 역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학교 바로 앞에는 병원이 위치해 있었고, 도보 5~10분 거리 내에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현지에서 유명한 베이글 전문점도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다. 현지 날씨는 여름으로, 햇빛이 강한 편이었으나 바람이 불면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졌다. 체감상 여름과 가을 사이의 날씨와 비슷하다고 느꼈으며 비가 와도 소나기정도로만 왔었다. 전반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날씨였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수업은 전반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집중 수업 형태였다. 주요 교과 내용은 영어 문법과 어휘 학습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호주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모둠 활동 및 토론 수업이 이루어졌다. 단순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실제 대화에 적용해보는 활동이 병행되었다. 수업은 영어만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수업 시간 동안 한국어 사용은 제한되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모둠원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어 자연스럽게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 또한 비슷한 영어 수준의 학생들로 반이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 부담이 적었고,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수업은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Microsoft Teams를 통해 학습 자료 공유 및 과제 안내가 이루어졌다. 국내 교육과 비교했을 때, 문법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 형식 보다는 학생 참여형 수업 비중이 높았으며, 실제 의사 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어학연수 기간 동안 바다 근처에서 열리는 야외 마켓을 방문하여 현지 상점들을 둘러보고 직접 향수를 구매하는 등 지역 상권 문화를 체험하였다. 마켓에서는 다양한 수공예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지인과 관광객이 어루어진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거리에서 진행되는 서커스 형식의 공연을 관람하여 호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공연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문화 예술이 일상 속에서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스테이크를 비롯한 다양한 현지 음식을 직접 맛보며 호주 음식은 생각보다 짭 느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무료로 개방된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여 호주의 예술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체험을 통해 단순한 관광이 아닌, 현지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적 가치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홈스테이는 현지 가정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홈맘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집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규칙과 식사 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다. 호주는 샤워하는 물 값이 비싸 샤워 시간 제한이 있었다. 이를 따르면서 현지 가정의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였다. 식사는 주로 홈맘이 준비해 주셨으며, 토스트, 스테이크, 양고기, 스파게티 등 다양한 음식을 접하였다. 식사 시간에 홈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먹는 시간이 좋았다. 홈스테이를 통해 단순히 숙소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홈맘과 일상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늘어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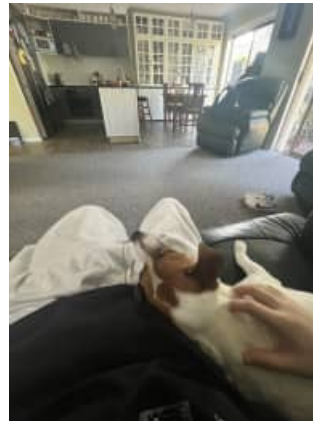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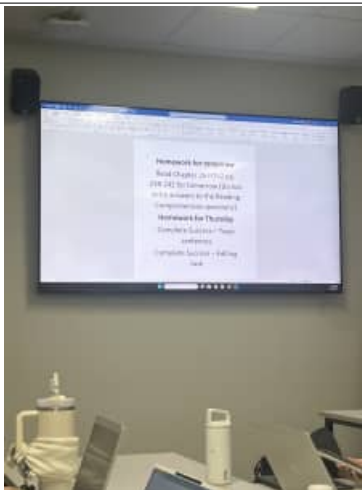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는 어학연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일주일에 1~2회 정도 현지의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외 시간에도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현지 문화를 보다 폭넓게 경험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단순히 수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전망대도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입장비를 혼자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가는 것이 훨씬 싸게 갈 수 있어 좋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경험을 넓게 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컬처쇼크는 대중교통과 운영 시간이었다. 특히 버스 막차 시간이 매우 빨랐는데, 내가 이용하던 노선의 경우에는 오후 6시가 막차였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대중교통이 운영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식당이 오후 6시 전후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저녁 시간에 외출을 하게 되면 계획을 미리 세워야 했다. 이러한 차이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현지의 생활 방식과 여유 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적응하는 태도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9. 관련 사진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파견 학교명	그리피스 대학교 (Griffith University)		
파견 국가/도시	호주/ 골드코스트	파견기간	2025학년도 동계
성 명		학 과	
학 번		학 년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2 월 19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대학교 대학 영어 시간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서 어학연수를 알게 되었고,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다. 서류에선 개인정보와 지원동기와 상세 준비사항, 계획 및 기대효과를 물어보셔서 성실히 답변하였다. 제출하고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어 면접을 2차로 보게 되었다.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영어 공부 방법과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면 되는 형식이었다. 열심히 대답한 결과 합격하게 되었다.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일단 합격 된 이후 단체카톡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야 하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먼저 항공권 구매는 추천해주신 일정의 항공권은 너무 비싸서 일정을 변경하여 하루 일찍 잭스타(호주 저가 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었다. 비자는 안내 받은 대로 블로그를 보고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었고, 그 외 OT에서(zoom으로 진행)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홈스테이를 예약하고, 학교 등록금을 내는 등 여러 준비 과정이 있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그리피스 측에서 메일이 오는데, 그대로 진행하고, 레벨 테스트를 보면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었다.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는 생각보다 컸다. 평택대학교보다 크다. 트램 내리는 곳 근처에 위치되어있어 접근성은 좋다. 우리가 수업을 듣는 동의 위치는 다리를 건너야 했지만, 많이 멀지는 않았다. 바다와도 가깝고 트램을 이용하면 다니기 좋은 위치인 것 같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배차시간이 길고 일찍 막차가 존재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내가 갔던 1월에는 날씨가 마냥 좋지는 않았다. 일기예보만을 믿으면 안 된다.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도 금방 날씨가 좋아져서 비는 금방 마른다. 흐린 날씨가 꽤 많았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개인적으로 수업은 중학교 원어민 영어 시간을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이렇게 배운다. 가끔 외부로 나가는 수업도 있다. 말하기, 읽기는 활동으로(돌아다니는) 주로하고, 쓰기와 문법은 주로 앉아서 구글 팀으로 책을 대신하여 쓰며 배운다. 쓰기와 읽기, 문법은 1주에 한번 씩 가볍게 시험을 본다. 학교에서 영어로만 대화하면 좋지만, 활동 중 한국 사람이 많아 생각보다 한국어를 많이 쓰게된다.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골드코스트는 여유롭다. 내가 가장 좋아한 점인데, 휴양지여서 그런지 인사하면 모두가 반갑게 인사해준다. 누구와 스몰토크를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친절하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한국에 대해 물어보거나 우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숙소는 솔직히 많이 좋지는 않았다. 숙소 주인분은 좋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았다. 학교를 가려면 10분 걸어 1시간마다 오는 버스를 타고 할렌스베일이라는 곳에서 트램을 타고 가야했기 때문이다. 어디를 갔다 오면 할렌스베일까지 와도 집 가는 버스가 평일엔 5시쯤 일요일은 3시쯤에 막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는 나를 배려해주셨는지 밥 위주라서 좋았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막 많지는 않지만, 보드게임, 공원 좀 더 값싼 비용의 전망대 동물원을 갈 수 있었다. 물은 먹기 힘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물 자판기가 비싸고, 물 수량 부족으로 내내 사 먹지 못했다.) 동아리는 잘 모르겠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 주택가로 이루어진 숙소(호스텔이)가 많은데, 우리 동네는 밝지 않았다. 일찍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개별 투어 중 들었는데 저녁 공원은 위험하다고 하니 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마트를 제외한 웬만한 변화가 아닌 이상 상가들이 일찍닫는다. 5시쯤 닫았던 것 같다.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카페가 2시에 닫는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음식점들도 은근 많고 KFC, SUBWAY 등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서 먹는 것은 고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이 비쌌다. 떡볶이, 김밥 세트가 2만 4천원이었다. (한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양)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파견 학교명	Griffith University		
파견 국가/도시	Australia	파견기간	2025학년도 동계
성 명		학 과	
학 번		학 년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2 월 13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어학연수의 전체적인 지원 절차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하고 서류 지원을 한 뒤 합격한 사람은 대면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지원하게 된 동기와 영어로 된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면접에서 합격할 경우 파견 학교로 연수를 나가게 됩니다.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자세한 과정은 어학연수 담당인께서 구글 폼을 보내주고 제출을 하면 해당 학교에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의 경우 반 배정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등록 비용과는 별개로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 뒤,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스테이 비용 납부를 진행합니다. 제 경우에는 홈스테이 신청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였고 따라서 홈스테이 측에 직접 일정, 위치 옵션을 조율한 뒤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받을 학교에서 발송된 영수증을 확인한 뒤 해당 비용을 어학연수 담당인께 보내주신다면 직접 신청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비자와 보험,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체적인 신청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항공권의 경우 과정 중 기호에 맞게 신청하면 되지만, 개별 출국할 경우 담당자분께 보고를 드리고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그리피스 대학교는 캠퍼스가 여러 군데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캠퍼스는 골드 코스트에 위치한 캠퍼스였고 그 중에서도 국제관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교 크기는 타 캠퍼스에 비해서 큰 것으로 생각되며 캠퍼스 내부에는 식당을 포함한 여러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학생증을 발급받게 되면 이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자전거, 자동차, 트램, 버스 등을 이용하여 등하교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은 50센트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현지의 날씨는 덥고 약간 습한 날씨였습니다. 비도 자주 오지만 매우 많이 오지는 않았으므로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학교에 처음 와서 수업을 받는다면 이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받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의 안전 수칙을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뒤 건물 안내를 받게 됩니다. 건물 안내를 받고 나면 해당 반을 확인 후 반으로 가서 수업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간단한 수업 또한 듣게 됩니다. 수업은 노트북 구글 팀을 이용하여 자료를 받고 진행하며 주로 문법과 어휘 중심의 발표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평가는 테스트와 과제로만 이루어지는데, 제 경우 테스트는 2회, 과제는 3개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수업 시간 이후에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신청은 구글 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액티비티는 비용 납부를 해야 하지만 문화 교류와 같은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 혹은 국립 공원과 같은 무료 입장 액티비티의 경우 비용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액티비티는 반마다 다르며 제가 속한 반의 경우에는 브리즈번 시티 투어를 액티비티로 진행하였습니다. 브리즈번 시티 투어에서는 팀을 이루어서 미션에 맞는 여러 사진들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문화 교류 액티비티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진행을 했는데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을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홈스테이에서는 일일 2식을 신청했지만 호스트께서 점심을 무료로 챙겨 주셔서 정말 만족스럽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위치 또한 학교에서 45분 거리로 버스 또는 트램을 통하여 쉽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는 대체로 현지 가정식을 먹었으며 예를 들면 파스타나 수프, 또는 라자냐와 샐러드 등을 주로 먹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고양이와 강아지 각각 한 마리씩 있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홈스테이 호스트께서 제게 친근하게 대해 주셔서 저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어디를 갈 때 자차로 데려다주시는 등 정말 감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 내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발급받은 학생증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캠퍼스 내 시설 또한 청결하고 깔끔했습니다. 방과 후 시간은 대부분 도서관 등의 시설을 둘러보는 데 사용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방대한 학습 자료와 여러 휴식 공간, 그리고 조용한 학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 방과 후에는 액티비티를 진행하는데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다과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게임 하기, 무료 공원 방문하기, 타워 올라가서 전경 감상하기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학교 할인으로 저렴하거나 무료였습니다. 액티비티의 분위기는 조용하거나 정숙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학생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골드 코스트는 호주 내 저녁에 돌아다닐 때 안전한 몇 안되는 지역으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다만 저녁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어 통행 시에 불편함이 있으며 되도록 8시 이후에는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낮 시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친절한 이웃도 있으므로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현지에서는 트램을 탈 때 트램 내부에 검표원이 존재하므로 트램 탑승 시 태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영을 하고 싶다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영을 해야 하며 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로는 호주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며 도보 시에도 좌측으로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건널 수 있습니다.

9. 관련 사진



